

도산 정신으로 일류 국가를 선도하는

도산아카데미

제307호 2016

07

www.dosan21.kr

우리 교육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 | 허남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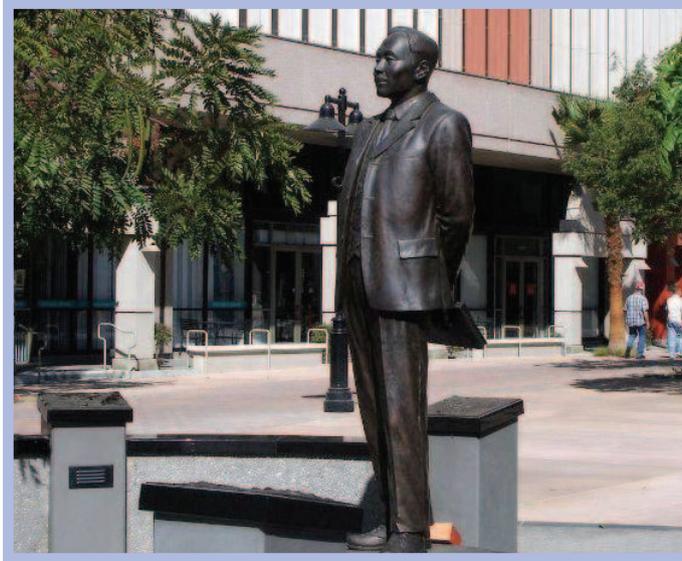
미래 사회와 대학의 변화 | 염재호

4차 산업 혁명과 핀테크 | 박수용

리더의 탁월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법 | 윤태정

소통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 김철균





미국 리버사이드시청 건너 편 도심에 세워진 도산 동상(2001년)

‘대한 민족을 참으로 건질 자는 우리 무리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독립 운동(3·1운동)이 시작된 후에 우리 동포의 결집도 많이 보았으나 또한 그 장점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민족이 빠짐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 동포의 원기가 어떠한가 정신이 어떠한가 정신이 어떠한가 애국심이 어떠한 것을 잘 알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우리에게 그같이 크게 동(動)하는 국민을 통어(統御: 거느려서 제어함)할 만한 중견력이 있고, 그 국민의 요구하는 일을 분업하여 맡을 인재가 있고, 또는 상당한 금전력이 있었던들, 우리의 운동은 크게 성공하였을 것이외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는 큰 소망을 가집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본질에 대하여 조금도 비판을 품지 아니합니다. 이에 통어할 만한 그 힘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대사업을 성취할 만한 민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도산 안창호의 말씀, 미주의 흥사단 동지에게 보낸 공개 서한 중에서(1921년)

통권 제307호 • 2016년 7월 • (사)도산아카데미 발행 • 서울 중로구 대학로 122, 5층(동송동, 흥사단) • 전화/(02)741-7591 • FAX/(02)764-1091 • http://www.dosan21.kr

- **고 문 고 건** 김신일 박찬모 백낙환 서영훈 정운찬 조 순
- **자문위원** 강용수 광덕훈 권철현 김경술 김동수 김영일 김용복 김창곤 김춘호 박성득 박세일 박인주 박영일 박정희 서정권 손봉호 심갑보 인문석 오용부 이각범 이기수 이배용 임덕규 최상호
- **이 사 장** 오 명 진 과학기술부총리
- **법인이사** 도문길 류태영 박익수 반재철 백두권 이만근 정운규 진영민
- **감 사** 이상진 채영수
- **원 장** 백두권 고려대 정보대 교수
- **부 원 장** 배영곤 안재환 유봉환 허남일
- **담당이사** 권병규 김명진 김성현 김정권 김철균 나홍석 도희운 박태수 박호상 백성희 신정근 신혜숙 유종건 이의현 임도영 최연식
- **운영이사** 구자관 권영선 김중해 김진희 도문길 박영일 박종규 박춘식 박태수 송오현 이동현 이상정 이승권 이영석 이의현 임재환 정운규 정종민 조재호
- **재정위원** 김성현 김영래 김영신 김정권 김창곤 도문열 류석근 목남희 박봉규 박호상 반재철 배영곤 백두권 백성희 서정권 서정숙 송언기 신혜숙 안재환 양시진 유봉환 유종건 이광우 이만근 이상복 이상석 이상용 정진홍 최상호 최영순 허남일 홍성안 홍태근
- **사 무 국** 이세경 황유철 이지영

우리 교육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

허남일 | 부원장, 강남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줄이고 소위 일류고를 없앤다는 명분하에 1969년 중학교 무시험, 평준화를 시작으로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서울 지역을 필두로 이제는 전국의 대부분 도시가 평준화 지역이 되었다. 그렇다면 사교육은 줄었는가? 아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늘었다. 일류고는 없어졌는가? 아니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 새로운 일류고가 과거의 일류고를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왜 없어지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학교가 평준화되어 일류고, 이류고가 없으며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교육받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불가능할까? 그야말로 이상에 지나지 않을까?

요즘의 우리 교육 현실을 보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 잠자는 아이, 교실이 엉망이 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냥 두거나 야단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면서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통제 수단이 약해졌고,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서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사교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된 이유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한데 있다고 본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키가 큰 아이, 작은 아이 있듯이 공부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 운동 능력, 노래 실력에도 차이가 있다. 이렇듯 차이가 있는 아이들을 한 교실에 두고 동일한 교과목에 동일한 수준의 수업을 하니 어떤 아이는 이미 아는 내용이라 재미가 없고, 어떤 아이는 도저히 못 따라가서 재미가 없는 것이다. 누구는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서 과외를 받아야 하고, 누구는 학교 수업이 수준이 낮아서 학교에서는 배울게 없으니 과외를 받는다. 이것을 모두 알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

평준화 이전에는 학교별로 수준 차이가 나서 같은 학교의 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만 모아 놓으니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면 되었다. 요즘은 한반의 학생들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교사들이 누구에게도 수준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한다. 평준화 학교에 수준별 학습을 하자. 교육부는 우열반을 안되고 수준별 학습은 된다고 한다.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 학생들을 모든 과목별로 상중하로 나누어서 아니 4단계, 5단계로 나누면 더 좋다. 우열반을 편성해서 그들의 실력에 맞게 가르치자. 그래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도록 하자. 그것이 그나마 사교육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사회와 대학의 변화

염재호 | 고려대 총장

4차 산업 혁명은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 하여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의 혁신을 이룬다. 이제 우리에게 50년 동안 존재해 왔던 고용 사회를 의식한 취업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과거의 고용 구조를 의식한 대학 정책들은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21세기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강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고(MOOC의 적극 활용) 학교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류 사회는 1, 2, 3차 산업 혁명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제 다가온 4차 산업 혁명은 더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IoT, CPS,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으로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 하여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의 혁신을 이룬다. 이제 우리에게 50년 동안 존재해 왔던 고용 사회를 의식한 취업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고용 사회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고용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개인의 능력을 엮어서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대기업 취업을 강요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 학사 조직을 포함해 많은 것을 바꾸려 시도했으나 자신의 전공 과목을 지키기 위한 교수들의 반대가 심해 지금까지의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제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정보를 외워서 답을 쓰는 능력을 키우는게 아니라 토론과 대화를 통해 많은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한다. 과거 미국에서 금광을 향해 골드러쉬를 했던 것처럼 미래의 인재들은 편안함 보다는 목숨 걸고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들도 점차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을 원한다. 따라서 과거의 고용 구조를 의식한 대학 정책들은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21세기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강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고(MOOC의 적극 활용) 학교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도 논문만 써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 융합·통섭 연구, 기초연구에서부터 사업화의 선순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려대학교는 이에 맞춰서 추진 중인 정책이 있다. 3無정책, 유연학기제, 장학금제도 개편, 입시제도 개혁이 그것이다. 3無정책은 첫째, 출석부를 없애고 둘째, 절대평가의 도입 셋째, 무감독 시험 도입이다.

학생들은 성적의 노예를 만드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의식을 심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훈련을 시켜 21세기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 이에 장학 제도도 성적 장학금 대신 프로그램 장학금,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입시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 수능 성적 위주 및 학원형 인재 선발을 지양하고 잠재력과 가능성 중심의 인재 선발하고자 한다. 각 과별 교수들이 학생들을 직접 만나 보고 선발하는 식으로 바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는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상상하는 것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따르기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토론을 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327회 리더십 포럼 ▶

- 일시: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7시
- 발표: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제328회 리더십 포럼 ▶

- 일시: 2016년 9월 21일(수) 오전 7시
- 발표: 김용학 연세대 총장

문의: 도산아카데미 사무국(02-741-7591)

4차 산업 혁명과 핀테크

박수용 |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

4차 산업 혁명은 'IT 기술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핀테크'는 금융 분야의 4차 산업 혁명이다. 즉 IT 기술이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은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적 IT 기술이다. 우리나라가 지원적 기술에서 혁신적 기술로 빨리 옮겨가야 4차 산업 혁명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다.

1 차 산업 혁명은 수공업에 의한 것들이 기계의 발명으로 인하여 자동화되는 혁명이었고, 2차 산업 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인한 대량 생산과 확산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의 혁명'이다. 즉, 기계가 발명되고 노동력이 대체되어 매스 프로덕션이 일어나는 흐름인 것이다. 그러나 3차, 4차 산업 혁명은 IT, 소프트웨어, P2P 연결 등 인간의 지식 서비스를 대체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

이러한 혁명의 기저에는 컴퓨터가 있으나 그 양상은 다르다. 3차 산업 혁명에서의 컴퓨터는 일상적 업무의 자동화, 정보화가 주된 측면이었지만 4차 산업 혁명에서의 컴퓨터는 사람들의 추론이나 지식에 기반 한 것들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의 예시로는 '보더스 서점', '블록버스터 비디오 대여점'을 들 수 있다. 두 기업 모두 미국 제1의 유통망을 가진 기업들이었으나 각각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과 영화 파일을 직접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공급하는 '넷플릭스'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다. 기존의 업종들의 이러한 변화는 이외에도 핸드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IT 기술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핀테크'는 금융 분야의 4차 산업 혁명이다. 즉 IT 기술이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핀테크는 기존의 은행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킨다. 즉, 금융의 직거래 플랫폼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P2P 방식은 중개자가 없으므로 가격이 저렴해지고 직접 연결을 통한 속도의 향상도 꾀할 수 있으며,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의 소외 계층들도 서비스를 받기 용이해져 금융의 범위가 넓어지

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금융의 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제, 송금, 투자, 대출까지 많은 분야가 IT 기술에 기반 한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금융 산업 위기라고도 불리지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IT 기술 또한 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지원적 측면으로만 발전했으며 이는 3차 산업의 기술들이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은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적 IT 기술이다. 우리나라가 지원적 기술에서 혁신적 기술로 빨리 옮겨가야 4차 산업 혁명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다.

혁신적 IT 기술 기반의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빅 데이터 기반의 분석, 온라인 P2P 플랫폼을 통한 비용 절감, sns를 이용한 사용자 분석, 소셜 콘텐츠 적극 활용 등의 모습이 보인다. 소셜적인 측면으로 투자자들을 묶고, 그로부터 다양한 빅 데이터를 좋은 기술이 분석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은행 등도 스스로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플랫폼을 개방하여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그로부터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혁신적 IT 기술은 많이 약한 편이며, 기술 개발에는 엄청난 투자와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적 기술 실험의 장으로 사용하여, 해외 연구소들의 앞선 기술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이 메우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변화하는 능력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앞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리더의 탁월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법

윤태정 | 아나운서(주) 대표이사

리더의 스피치는 크게 스테이지 스피치와 컨택트 스피치로 나누어 진다. 스테이지 스피치에는 프레젠테이션, 기자회견, 신년사, 송년사 등이 있고 컨택트 스피치에는 회의 주관, 건배사, 미디어 인터뷰 등이 있다. 이 같은 리더의 스피치에서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은 10가지가 있다.

첫째, 리더의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표현되지 않는 스피치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스티븐 잡스도 처음부터 탁월한 이야기꾼은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가 자신감이 있는 스티븐 잡스를 만든 것이다.

둘째, 리더의 소통이다. 소통은 내가 가진 생각을 잘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일반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주고받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조직 문제의 60%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리더의 눈높이다. 쉽게 말할 것을 제안한다. 요즘 현대인들은 simple(단순하고), easy(쉽고), short(간결한)를 좋아한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쉬운 말로 임팩트 있게 15초마다 변화를 주어야 한다.

넷째, 리더의 이미지이다. 리더의 이미지가 청중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다. 3초 만에 결정되는 첫 인상은 리더에게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리더의 목소리이다. 목소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저음,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중음과 쾌활함이 느껴지는 고음이 있다. 스피치의 시작은 중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오바마의 중저음은 연설을 할 때 신뢰감을 향상시킨다. 스피치를 할 때는 음성에 목소리를 실어 멀리 던지는 것처럼 발성을 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리더의 발음이다. 정확한 발음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ㅏ’ 라는 모음을 발음할 때는 최소 손가락 세 개를 세워서 입에 들어갈 만큼 벌리는 것이다. 발음은 입 벌리는 턱 운동이다.

일곱째, 리더의 키워드이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포즈 기법이 있습니다. 리더가 생각하는 키워드 앞에서 멈춤으로써 그 다음 오는 말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쓰는 기법이 바로 포즈 기법이다.

여덟째, 리더의 시선처리이다. 청중들의 공감력은 리더의 시선 처리에서 나온다. 눈맞춤을 통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신감과 진실성은 눈빛에 담긴다. 따라서 허공이나 땅을 보고 두리



번거리는 것은 좋지 않다. 자연스러운 눈빛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 사람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듯이 바라 본다. 한 사람만 보지 말고 다 보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긍정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시선 이동법도 있다. 가장 반응이 긍정적인 사람을 보는 것이다.

아홉째, 리더의 제스처이다. 단조로운 스피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스처가 필요하다.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는 제스처가 청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스처이다. 손가락과 손등이 청중에게 향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청중들은 거부, 폐쇄, 공격적인 동작이 아닌 환영, 상승, 개방의 제스처를 좋아한다.

열째, 리더의 말 정리이다. 효과적인 말 정리의 기술로 P.R.E.P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Point, 핵심 메시지를 주장한 이유를 설명하는 Reason, 핵심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사례, 근거를 제시하는 Exampl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Point이다.

| 도산 CEO 코칭 포럼 참석자 후기 |



한상희

한국코칭심리협동조합 대표코치
인덕대/대림대 외래교수

2014년부터 도산 CEO 코칭 포럼과 인연을 맺었는데, 각 분야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인사들의 지나온 삶들을 배우며 매번 접할 때마다 신선한 자극과 자발적 동기를 주는 모임이다.

특별히, 지난 106회 코칭 포럼은 도산아카데미가 창립 27주년의 오랜 역사를 맞이하는 기념 행사가 있는 뜻 깊은 날이었다.

개회와 애국가 제창을 마치고 양식코스 만찬을 하며, 도산애기애타봉사단의 오카리나 연주로 기념 축하를 시작하였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군침이 돌 만큼 음식은 맛깔스럽고 정성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세심하게 27주년을 준비하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고 즐겁게 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 봉사단의 연주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박하게 마음에 와닿아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해주었다.

이번 기회로 새롭게 알게 된 봉사단은 주로 다문화 가정 교육 후원, 멘토링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 계층의 지원 및 교육 후원 사업을 한다고 한다. 새삼스레 애기애타(愛己愛他)를 강조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음을 느껴보기도 하였다.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나는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철학적 질문도 던져 보았지만 시원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1부로 기념식과 임시 총회에 이어 2부는 강용수 도산CEO코칭포럼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윤태정 대표이사님의 특강을 들을 수 있었다. 평소 코칭포럼 때 사회를 봐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사 소개를 통해 과거에 TV에도 나오신 유명한 아나운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강의 주제는 "리더의 탁월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었는데, 역시 전문 아나운서의 강의는 확연하게 특별했다. 차칫 피곤할 수 있는 저녁 시간 때 임에도 불구하고 중음의 안정된 톤과 정확한 발음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귀를 쫓긋하게 만드는 유쾌하고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평소 필자도 학교와 현장에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는 스스로에게 접목시켜 자신을 점검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특강에서 주요 내용은 첫째, 스피치를 통해 리더의 자신감을 더 증진시키고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둘째, 타고난 이야기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준비로 만들어진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표현 능력이며 두 귀로 70%를 듣고 30%만 말하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잘 정리해서 강의해 주셨다. 이번 강의를 통해 보다 전달력이 높은 강의자가 되기 위해 콘텐츠 외에도 발성과 발음, 제스처 등에 노력을 부단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이번 27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 정신을 살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잘 돌보며, 타인에게도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본다.

피라미드식 네트워크 인간관계론



김정권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얼마 전 우연히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 년 동안 수행할 숙제를 내준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오라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숙제는 숙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소년은 진심으로 이 숙제를 받아들이고 '사랑 나누기' 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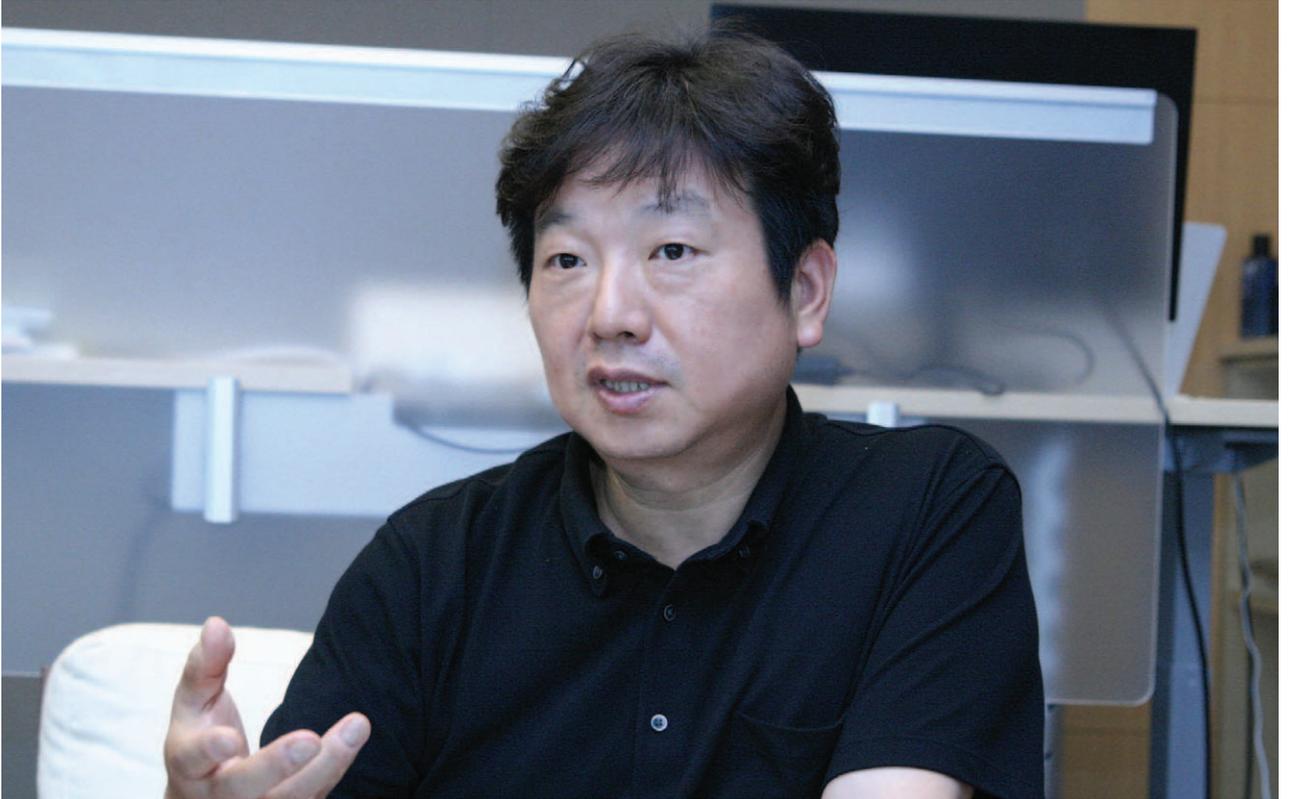
마약에 빠진 노숙자, 알코올 중독인 엄마, 그리고 지난 상처 때문에 너무나 소극적인 선생님, 소년이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들이다. 처음에 소년의 순수한 생각만큼 세상사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소득이 있었다. 선생님과 엄마가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서로의 좌절을 극복하게 되고, 도움을 준 노숙자가 곧 자살하려는 여인을 구해주고, 다시 그 사람들이 다른 세 명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어, 결국 '사랑나누기 운동' 이 된다는 우연히 심화된 지극히 영화적 소재의 영화였다.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다. 정말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대책 없이 달려만 가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뒀안길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작은 힘! 그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초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재미교포 환경운동가 대니서(한국명 서지운, 32)가 생각났다. 대전 출신으로 2세 때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도미한 대니서는 12세 때인 1989년 친구 7명과

함께 단돈 23달러로 환경운동단체 '지구 2000(Earth 2000)' 을 결성, 97년까지 이 단체를 회원 2만 6,000명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키운 환경운동가이다. 그는 2002년 피플지와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서 소년과 대니서의 힘에는 서로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그 방법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피라미드식 네트워크에 의한 인간관계 설정이었다. 피라미드가 절대적 이윤추구를 위해서 타인에 피해가 될지라도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소년과 대니서는 '사랑' 과 '환경' 이라는 인류의 희망을 위해서 인간관계에 의한 세상 바꾸기를 시도한 것이다. 피라미드나 소년, 대니서 모두 피라미드식 네트워크라는 방법은 같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 나누기' 라는 작은 출발이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해 준 소년의 마음, 몇 명 친구들과 작은 출발이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환경 운동을 해내고 있는 대니서, 모두 작고 나약하다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신자유주의의 뒀안길에서 계속 낙담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에게는 작은 힘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그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피라미드식 네트워크의 소재들은 충분하다. 인터넷이나 SNS 등 첨단 통신 체계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무한한 소재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윤만 추구하는 피라미드식 마케팅에 골몰하지 말고, 이웃 간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피라미드식 네트워크에 의한 사랑 나누기, 또 그것에 의한 세상 바꾸기가 필요한 것이다.



“소통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김철균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을 찾아서

김철균 회장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쿠팡 부사장으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지금은 고문으로 있다.

지난 4월 임기 3년의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의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또 중소기업인 희망재단 상임 이사도 맡고 있는 김철균 회장을 6월 24일(금) 오후 4시, 희망재단 사무실에서 안재환 총무부원장(서울유스호스텔 원장)이 만나보았다.

한편, 김철균 회장은 7월 1일에 열린 「스마트 포럼」에서 오명 이사장으로부터 스마트포럼담담이사로 임명되어 「스마트 포럼」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쿠팡 부사장으로 국내외로 바쁘게 활동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난 3월까지 쿠팡 부사장으로 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특히 난청) 조금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4월부터는 고문으로 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여기저기서 같이 일하자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중소기업인 희망재단의 상임 이사를 맡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대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무렵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신임 회장과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민앤지 사외이사도 맡게 되면서 어찌다 보니 쉬지도 못하고 다시 더 바빠졌습니다(웃음).

지난 4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협회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해온 일들과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는 2004년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모여 웹어워드위원회로 웹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내 최초의 웹 관련 시상식인 'Web Award Korea'를 개최해 오다가 2010년 사단법인으로 공식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전문가의 복리 증진과 정보 및 지식의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관련 산업의 상생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인터넷 활용성을 개선하며, 웹어워드 시상식의 국제화를 통한 우수 웹 서비스 발굴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협회 태동의 근간인 인터넷 관련 시상식 Web Award Korea를 13년째 시상해 오고 있으며, Smart APP Award 및 Internet Eco Award, IoT Innovation Award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전문가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육과 인터넷 관련 R&D 지원 사

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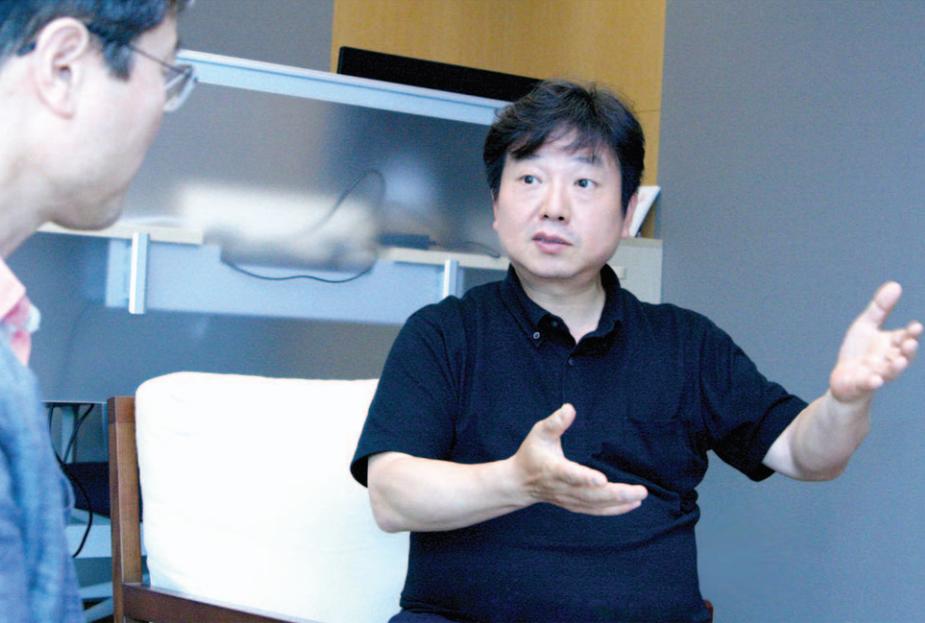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제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Risk)를 총체적인 시각으로 운영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기관리사(IRM, Internet Risk Manager)를 교육,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위기의 관리 이해 및 활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변화가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이에 관련된 다른 협회나 관련 단체, 정부 등과 함께 인터넷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인터넷 산업 전반의 공동 협의체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가들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회장님께서서는 1988년 데이콤에서 시작해 하이텔, 하나로드림, 다음커뮤니케이션, 쿠팡 등 많은 회사를 거치셨습니다. PC 통신 시대를 거쳐 인터넷과 모바일로 바뀌는 IT 변화 중심의 현장에 계셨던 시절을 회고해 보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으로 여기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1988년 사회 생활을 시작해 28년 동안 이직한 횟수가 15~17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제가 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책상 자리



“
 소통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공감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넓혀 주는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

는 그대로인데 명함이 세 번 바뀐 적도 있었습
 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가는 동안
 큰 변화 속에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기억만 일곱 번이나 됩니다. 기존 시스템과
 변화하는 제도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실무자
 들이 제일 먼저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늘 일선 실
 무자들이 조사받느라 불려 다녔죠.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납니다. 1990년에 미국
 PC통신서비스 포럼을 처음 듣고 의견을 나누며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하이텔과 천리안의 동
 호회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집착하다 보니 동호
 회 개설을 엄격하게 통제했지요. 제가 나우콤 창
 립 멤버로 참여하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자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서 많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지
 금의 인터넷 카페가 된 것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어린이기자단을
 운영했습니다. ‘청와대 사상 최대 행사’를 검색하

면 어린이기자단 초청 행사가 나올 것입니다. 작
 년에 대한민국 인재대상 심사위원 자격으로 시상
 식에 참여했는데, 어린이기자단 1기라며 인사를
 하는 한 고등학생을 보면서 그때 그런 노력이 청
 소년의 열정과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울대 공과대를 다니다가 학사 경고로 제
 적당해 연세대 경제학과로 옮겨 졸업했습니다. 그
 령지만 저는 연세대가 아닌 연세춘추라는 대학신
 문사를 졸업했다고 할 만큼 대학신문사에 폭 빠져
 지냈습니다. 졸업 무렵 주변 친구들은 모두 언론
 사로 진출했지요. 그런데 저는 PC통신을 접하면
 서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 이쪽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알려져 있
 습니다. 특히 광우병 촛불 파동으로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의 뉴미디어비서관과 2012년 인혁당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소통 전략을 맡은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핵심은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부른 판단과 선입견을 버리고 끝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자리도 많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유연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통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공감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넓혀 주는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one-way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형 언론사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모바일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와 고민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서는 현재 중소기업인 희망재단 상임이사로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 컨퍼런스에 다녀오셨습니다. 느끼신 점과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제 불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희망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 등이 온라인 비즈니스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건강한 웹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갈등 중재·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협의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

립되었습니다.

처음에 네이버의 추천으로 이곳 이사를 맡게 되면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 많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미국 시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빨리 많이 파는 데 사로잡혀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명이 짧은 데 비해, 일본은 제품의 경쟁력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100년, 200년 이어가면서 스토리를 만듭니다. 남은 흥내낼 수 없는 그 스토리가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런 차이를 보면서 양쪽을 균형 있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최근 취업 준비생을 위한 '토크 콘서트 원추'를 통해 전국을 다니며 많은 청년들과 만남을 갖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함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청년 구직자 힐링을 위한 '토크 콘서트 원추'를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5대 도시를 돌면서 개최했습니다. 제가 이 콘서트의 패널로 참여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전문 MC인 박경림 씨가 진행을 맡아 잘 이끌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대기업, 공무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 일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했던 한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소기업으로 가서 자신이 꿈꿨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생각을 매일 같이 쓰자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원장

생각을 같이 쓰기에 명수인 폴 J.마이어는 불과 27세에 억만 장자가 되었다. 성공이란 끊임없는 여행이다. 여행을 다 마친 종착역이 아니듯, 한번 성공하고 말면 그것은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보면 자기를 같이 쓰는 일에 명수라는 사실이다. 정신이 살아 있어야지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 생각을 같이 쓴다 함은 정신이 항상 살아있게 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다.

풀을 잘 깎고 벼를 잘 베기 위해서는 농부는 낫을 같이 쓴다.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칼이 잘 들도록 같이 써야한다. 목수는 예술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대패나 톱을 같이 쓰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을 매일 같이 쓰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어제를 성찰하고 오늘 정신을 가다듬어 정진하는 사람들은 삶이 즐겁

다고 한다. 건축할 때 나무를 대패질하거나 톱을 사용할 때 잘 들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각하지 못하고 같이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운동 선수는 자기 기량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음악 하는 사람들도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매일 가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연습 즉 '연주'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대연주가일수록 자기를 같이 쓰는 일에 더욱 열정을 부린다.

나라의 통치자도,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인들도 하루를 성찰하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생각을 같이 쓴다면, 시간을 낭비하거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되풀이 하듯 할 수가 있을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성찰하고 매일 생각을 같이 쓴다면, 국가가 보다 활기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골프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사말로 칼 많이 갈고 왔느냐고 묻는다.

어떤 게임이든 실력이 모자라다 싶은 사람에게 늘상 쉽게 하는 말이 당신 칼 많이 갈고 왔느냐고 묻는다. 또 의외로 놀라운 기량을 보이면 저 친구 그동안 칼 많이 갈고 왔는가 보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재방송이 없는 생방송인데도 자기 인생을 잘 살기위해, 행복하기 위해서 다짐하면 칼 가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던 말인가? 당신도 운동선수나 목수와 음악가들, 그리고 훌륭한 목수처럼 매일같이 자기를 성찰하고 갈아 쓰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당신도 오늘부터 당장 당신을 갈아 쓴다면 분명 당신 인생의 미래에 풍요로움을 보장 받게 된다. 그럴 때 당신 앞에는 끊임없이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는 길을 갈 때도 가끔은 발을 헛디디게 되어 발목을 다치는 경험들을 해 보았을 것이다. 우리 인생살이도 빼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 생각을 갈아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당신도 머뭇거리지 말고 반드시 매일 당신의 생각을 갈아 쓰는 인생을 살아야한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생각을 해보자. 목적지를 가는데 항법 장치가 잘 갖춰 있다 해도 항로를 정확히 따라 가는 것이 아니란다. 날아가는 도중에 항로를 수없이 벗어나지만 다시 바로잡는 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우리 삶도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기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자기의 생각을 갈아 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같이 생각을 갈아 쓰면 어떤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매일 생각

을 갈아 쓰면, 당신 생각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 수준을 결정하게 해주며, 당신 운명도 바꾸게 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직장이란 말이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오르지 남다른 경쟁력을 갖는 것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 틈새 시간을 당신이 매일 같이 갈아 쓴다면 당신의 미래는 장미 빛이 될 것이다. 우리는 1%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면서 살고 있다. 사실은 1%, 1%의 성공이 합쳐서 결국에는 100%의 성공을 만들어 내듯이 매일 같이 생각을 갈아 쓰는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정녕 사랑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갈아 쓰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당장 그 길을 실천하는 실행인이 되어보자.

〈도산 정신 실천 캠페인〉

7월의 실천 사항: 정치 생활

1. 민족 화합과 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 민주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3.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 이행한다.
4. 지역 감정과 연고주의를 배격한다.
5. 자주 정신을 높이고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갖는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이하여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기획팀장



2016년 7월 8일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처럼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문명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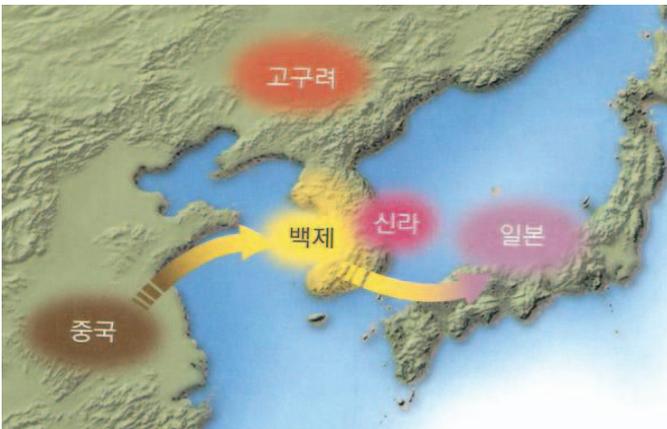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700여 년간 한반도의 고대 국가였던 백제의 유산으로 공주, 부여, 익산 등 3개 시, 군의 8개 유산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이상 공주),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이상 부여),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이상 익산) - 으로 우리나라 12번째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 유산 등재 기준 중 2가지의 등재 기준을 충족하였는데, 첫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 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제인들은 활발한 대외 교섭을 통해 외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이를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훌륭하게 조화시켰고, 다시 일본에 전파하는 고대 동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 번째는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림사지 건축물의 하부 구조를 장식하는 기와를 쌓은 와적기단과 능산리 고분군의 정갈한 형태의 횡혈식 석실묘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백제 문화는 외래 문화를 단지 수용하기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백제의 전통에 흡수시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백제만의 독특한 문화로 재탄생시켰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백제 문화



가 세계 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세계 유산 등재 후 많은 사람들이 백제 역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다녀갔다. 그러나 이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등재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손쉬운 안내 책자가 없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백제 역사는 물론 세계 유산 등재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을 위한 숙박 시설과 문화 콘텐츠가 미비하여 다시 방문하기를 꺼리는 지경이다.

등재 1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풍납토성 등을 포함하여 추가로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유산 등재만큼이나 이미 등재된 문화 유산이 사람들에게 외면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한 것이다.

2016년 도산인상 (부문상) 수상 후보 추천 공고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鎬, 1878~1938)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 서상목)와

도산아카데미(이사장 오명, 원장 백두권)는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38주년을 기념하여 11월 9일 열리는 제27회 <도산의 밤> 행사에서

2016년 **도산인상(부문상)**을 공동으로 시상합니다.

금년도 도산인상(부문상)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부문 및 수상 자격

- 부문: **교육상, 봉사상, 경영상** 등
- 수상 자격 및 인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과 정신을 실천하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각 시상 부문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각 부문별 1인

제출 서류

- 추천서.....1부 • 주요 공적 증빙 자료...1부
- 공적서.....1부 • 사진.....1장

추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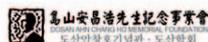
- 기 간: 2016. 6. 8(수) ~ 8. 31(수)
- 방 법: 이메일 (부득이한 경우 또는 증빙 자료는 우편 접수)

발표 및 시상

- 발 표: 2016. 10. 초순(개별 통지 및 언론 보도)
- 시상식: 2016. 11. 9(수) 18:30,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볼룸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 용: 상패 및 부상

접 수 처

- 도산아카데미 사무국
-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2 5층(동숭동, 흥사단)
- 전 화: (02)741-7591, 이메일: dosan21@dosan21.kr
홈페이지: www.dosan21.kr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제106회 도산 CEO 코칭 포럼



6월 23일(목) 오후 6시 30분,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백두권 원장, 송오현 DYB교육 대표, 허남일 강남대 경영학부 교수를 비롯한 130여 명의 회원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제106회 도산 CEO 코칭 포럼을 가졌다.

윤태정 아나운서(주)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함께 시작하여 류태영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의 만찬사와 축배로 만찬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도산애기애타봉사단의 후원을 받

았던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어머니의 오카리나 축하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산아카데미 27년 발자취를 영상으로 본 뒤 백두권 원장의 기념사와 도산아카데미 공식후원기관으로 본 포럼을 협찬하는 송오현 DYB교육 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그동안 도산아카데미 발전에 공로가 크고 도움을 많이 준 회원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공로패는 참석한 배영곤 변호사배영곤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국희 삼화회계법인 이사, 이만근 엠케이이앤티 대표에게 각각 전달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4명 중 행사에 참석한 김성태(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준영(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간략한 소감을 들었다.

이어진 임시총회에서는 구자관, 배영곤, 백두권, 송오현, 허남일, 강석진 등 6명의 신임 등기 이사를 선출하였다.

제2부 제106회 도산 CEO 코칭 포럼은 유봉환 도산코칭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윤태정 아나운서(주) 대표이사의 '리더의 탁월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이번 27주년 기념 행사와 코칭 포럼은 DYB교육(대표 송오현)이 협찬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여호영(쥬지아이 에스 부회장)이 준비한 기념품을 배포했다.



제325회 도산 리더십 포럼



6월 15일(수) 오전 7시,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및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5회 「도산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배영근 변호사(교육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미래 사회와 대학의 변화'란 주제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236회 스마트 사회 지도자 포럼

6월 3일(금) 오전 7시,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6회 「스마트 사회 지도자 포럼」을 열었다.

최성 남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박수용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을 초청해 '4차 산업 혁명과 핀테크'란 주제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16-3차 원장단 회의



6월 7일(화) 오전 7시, 서울 중구 예장동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원장단 제16-3차(6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백두권 원장을 비롯한 허남일(교육)·유봉환(재정)·배영근(조직)·안재환(총무) 부원장, 이세경 국장, 황유철 차장 등 7명이 참석하여 신입회원 승인, 창립 27주년 기념식, 임시 총회, 도산의 밤 등의 과제를 토의했다.

제25차 임시총회

6월 23일(목) 열린 제25차 임시총회(대의원)에서 등기 이사 6인을 선임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전 GE코리아 회장), 구자관 (주)삼구Inc 책임대표사원(운영이사, 도산애기애타봉사단 단장), 배영곤 변호사(조직부원장), 백두권 고려대 정보대 교수(원장, 재선임), 송오현 DYB교육 대표(운영이사), 허남일 강남대 경영학부 교수(교육부원장) 등이다.

한편, 이번에 4년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이사는 4인으로 모두 후진을 위해 연임을 사양했는데, 오명 전 부총리는 2007년 3월부터 이사와 이사장을, 류태영 농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박익수 강남대 명예교수, 이만근 MK E&P 대표 등은 법인 설립 이후 16년 동안 이사로 헌신해 왔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사퇴한 이사는 진용민 애신망 회장이다.

오는 7월 20일(수) 오전 9시,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제26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과 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스마트포럼 담당이사 임명



오명 이사장(전 과학기술부총리)은 그동안 스마트포럼 담당이사로 수고한 인호 고려대 교수가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7월 1일자로 김철균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을 후임 스마트포럼 담당이사로 임명하였다. 김철균 담당이사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대통령실 뉴미디어 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쿠팡 부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운영회비 접수



구자관 책임대표사원

도산아카데미 운영이사인 구자관 (주)삼구Inc 책임대표사원이 금년도 운영회비 3백만원을 납부했다. 구자관 책임대표사원은 1976년 직원 5명으로 (주)삼구개발 설립, 투명 경영과 고객 중심 경영으로 직원 23,000명이 넘는 넘는 국내 최대 인적 자원 아웃소싱 기업을 이끌고 있다.

신입회원 소개



강석진(1939년생, 회원번호 1246)

주소: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직장: CEO컨설팅그룹 회장

전화: (02)722-4913

e-mail: kang-ceoconsult@hanmail.net

회원동정

곽덕훈(자문위원, ㈜시공미디어 부회장): 6월 22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SO/IEC JTC1 SC36(교육정보기술표준화 총회) 회의에 한국대표단장으로 참석했다.

김임순(광운대 환경대학원 교수): 계간지인 '시와시학'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역새플 속 야고 꽃을 위하여' 등 다섯 작품이 시와시학 101호에 실리면서 습작시인이라는 틀을 벗고 지난 4월 30일 동송동 '예술가의 집'에서 시상식과 함께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다.

김영섭(법인회원, LG CNS 대표이사): 6월 17일 열린 LG엔시스 이사회에서 신입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모회사인 LG CNS 대표이사가 겸임한다고 밝혔다.

김준경(법인회원, 한국개발연구원): 지난 5월에 열린 제217차 이사회에서 3년 임기 원장으로 연임되었으며, 6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과 저성장 탈출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중해(운영이사, 한국화장실협회 회장):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봉사·나눔활동 확산을 위한 '사랑의 화장실 지어주기' 사업을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김현신(라비따 대표): 6월 16일, 7인의 음악가와 함께하는 라비따 7주년 기념 정기 콘서트를 가졌다.

류태영(2대 원장,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6월 29일,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 더모스트에서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창립 14주년 기념식과 후원회원 감사의 밤 행사를 가졌다.

박정호(법인회원, SK C&C 대표이사): 6월 1일, 서울 중로 SK서린빌딩에서 열린 IT 현안 설명회에서 '데이터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SK(주) C&C 사업 비전과 전략'을 소개했다.

백두권(원장, 고려대 정보대 교수): 6월 11일(토) 세빛섬(가빛섬, Vista 5F)에서 고려대 소프트웨어시스템연구소 3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백두권 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동안 배출된 박사 39명, 석사 200여 명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연구실 30주년 기념하고자 추진되었다.

서상목(도산기념사업회 회장): 6월 15일, 서울 신사동 도산기념관에서 열린 애기에타(愛己愛他)리더십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이승만, 김구, 안창호의 리더십 비교'에 관한 특강을 했다.

서재철(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 6월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주)하이테크정보 창간 27주년 기념 하이테크어워드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손봉호(자문위원, 고신대 석좌교수): 6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더불어 함께하는 대한민국' 세미나에서 '타자 배

려의 자원'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윤은기(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6월 8일, 호원대 초청을 받아 '융복합 창조시대-협업에 길이 있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만근(상임이사, 시인): 최근 문학전문지 『계간 문예』 2016년 여름호에 시 「거울 앞에서」 외 1편을 발표했다.

이영해(한양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6월 3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SCM 학회 춘계발표대회에서 '제1회 석학 학술상(Distinguished Scholar Award)'을 수상했다.

정연수(아이티타임즈(주) 대표이사): 6월 21일,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세미나실에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과 정보보호 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중섭(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6월 30일,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열린 국방 아키텍처 발전 방안 토론회에 초청돼 발제를 했다.

한석수(법인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권역 ICT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한 6월 28일, 서울바비엡교육센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방향'이란 주제로 제124회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했다.



나의 작은 배려,
아름다운 화장실의 시작입니다.

KTA한국화장실협회 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특수법인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 입니다.

- 화장실 이용 및 관리문화 선진화
- 공중화장실 정책 및 제도 개선
- 화장실 관련 산업 발전
- 취약계층 화장실 지어주기 운동
- 화장실문화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 발전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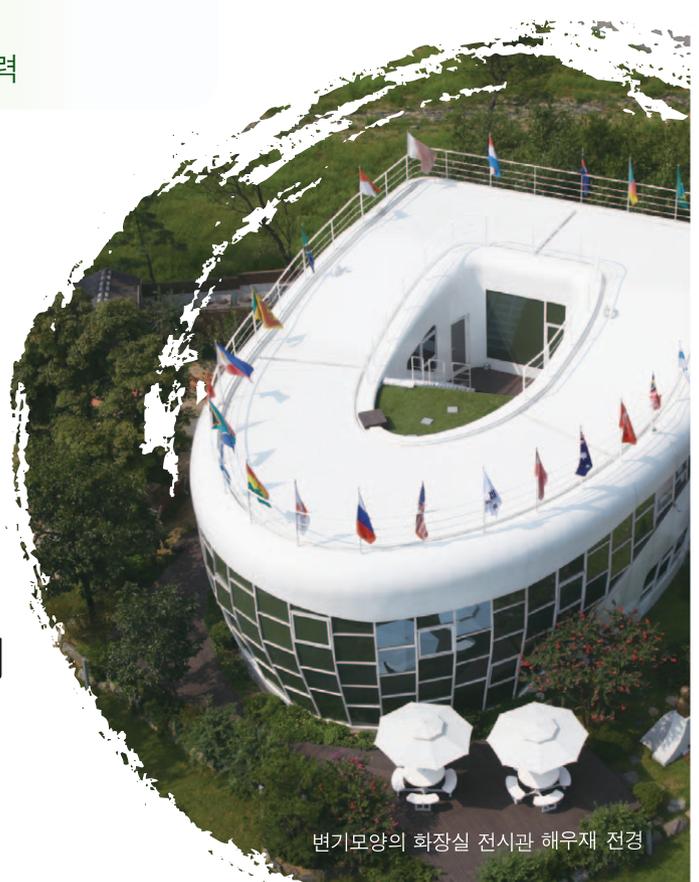
회장 김 종 해

 **KTA** 특수
법인 한국화장실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1-3(동자동)LBS빌딩 2층
교육센터 전화 : 02-3789-9974~5 / 팩스 : 02-3789-9976

해운대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63 해우재문화센터 3층
전화 : 031-226-7001 / 팩스 : 031-226-7045

홈페이지 www.toilet.or.kr



변기모양의 화장실 전시관 해우재 전경